

도교육청, 오늘 내년 예산안 도의회 제출

총 규모 3조4691억원... 전년보다 1534억원 증가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늘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34억원(4.6%) 증가한 3조 4,691억원으로,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지속추진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18년도 보다 1,495억원(5.2%) 증가한 3조 415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116억원(3.5%) 증가한 3,433억원, 자체수입(33억원 증가) 및 전년도 이월금(110억원 감소)은 77억원(8.3%) 감소한 843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

원운용 1조 5,427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789억원 ▲교육복지지원 3,65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14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788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47억원 ▲평생직업교육 68억원 ▲에비비 및 기타 243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2,373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1.8%)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2조 372억원(전체예산의 58.7%)을 편성했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포함해 440억원을 증액했다.

학교신설비는 2019~2021년도 개교 예정인 전주양현초 등 13개교에 1,001억원, 공립유치원·초·중학교 학급증설에 127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40억원 등 모두 1,168억원을 편성했

다. 특히,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학교 학기중 급식비 지원 단가를 300원~400원 인상하고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단가도 500원 인상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에 1,248억원을 편성했고,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및 공기순환기 설치에 55억원을 편성했으며, 무상보육을 위해 1,301억원(유치원 622억, 어린이집 679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2,175억원을 반영하고, 교직원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교육 수련원 신축(가칭) 사업비로 145억원(총 사업비 288억원)을 반영했다.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지원을 위해 84억원을 편성했으며, 학습더딤 원인별 맞춤형 지원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44억원을 반영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원금 상환에 640억원을 반영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 2,516억원(기 상환 1,681억원 + 2회추경(연말) 상환예정 835억원)과 내년도 지방채 640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잔여 지방채는 2,19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7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 5,870억·상환(예정)액 3,680억 = 잔액 2,190억)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제출되는 2019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5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한자리서 만난다

전북대, 사대부고 학생 제작 시제품 등 40여점 전시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가 오늘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관에서 열리는 '2018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에 청소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품을 전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5개 권역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중·고교생들이 신산업 분야에 적용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제작하고 특허출원까지 진행하는 경진대회이다.

지난 5월 권역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 후 해당 팀들에 대한 기업과 대학연구실 연계 멘토링을 통해 10월 23일 최종 심사가 진행됐다.

전북대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는

호남·제주 권역 내 7팀을 선발,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실을 연계해 6개월 동안 시제품 제작 및 분산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참가팀 중 전북대사대부고 학생들은 파라다이스(Para-Dice)라는 주제로 햇빛을 막아주는 파라솔 본연의 기능 외에 최적화 프로그램, NFC, 태양광, 드론, 증강 현실을 결합하여 최적의 자리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시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이외에도 태양광, 미세먼지, 인공지능,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생활이 직접 적용이 가능한 40개 아이디어들이 부스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23일에 진행된 '2018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최종 심사에서 전북대 사대부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

익산교육지원청, 해설이 있는 신춘향전 공연 관람

익산교육지원청(이수경)은 8일 관내 9개 초등학교 93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 신춘향전'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도교육청의 문화예술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는 '봄지락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예술단체인 강명선현대무용단이 기획한 '해설이 있는 신춘향전'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춤 공연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접목해 쉽고 재밌는 현대무용으로 창작했다.

또한 이리공업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뉴월드' 학생 7명을 비롯해,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학생들과 전주오송중, 전주서중, 전리중, 전주서신중, 봉서초 등 30여 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출연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교생 31명과 함께 빛낸 '호랑이랑 아리랑'

주천초 창작뮤지컬 공연 성료

주천초등학교(교장 양금옥)는 지난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호랑이랑 아리랑' 어린이 창작 뮤지컬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전교생 31명이 모두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산촌 아동들에게 뮤지컬 공연을 통한 문화적 소외감 해소와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경험 및 폭넓은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양금옥(주천초)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1년간 땀 흘려 준비한 오늘 뮤지컬 공연을 통해 자라는 학생들에게 예술 분야 진로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큰 무대에서의 공연 경험으로 아이들의 예술적 역량을 한층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LINC+사업단 김영선 교수가 산학협력엑스포에서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북대 LINC+사업단 김영선 교수 산학협력 엑스포 장관상 수상

지역산업 네트워킹·산학협력 확산 등 공로 인정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하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김영선 산학협력중점교수가 2018 산학협력엑스포에서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가족회사 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 산업체 네트워킹 강화, 특화 산업 분야 산학협력 확산 및 지역사회 혁신, 친산업 교과목 강의를 통한 산학협력 교육 및 인력양성 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2018 한국연구재단 현장실습 수기공모전에서는 윤현민(동물생명공학과 4학년)학생이 '경협으로 준비한 축산유망주, 다산에서 출발하다'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받는 등 값진 성과를 올렸다. 고영호 전북대 LINC+사업단장은 "산학협력 EXPO에서 우리 대학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산학협력을 고도화하고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편견없는 학교 문화 형성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

오늘 다문화 담당교원 워크숍 교육 활성화 주제로 자유토론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전주 리투체 별관 세미나실에서 다문화교육 담당교원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초·중·고 다문화교육 담당교원 90명과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교사 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2019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통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진미 교사(이리유치원의 '유치원 다문화 적용 수업', 김혜림 교사(순창초)의 '초등 다문화 적용 수업', 장인영 교사(군산 구암초)의 '다문화 프로젝트 수업 적용', 고진규 교사(고산초)의 '이중언어동아리 운영', 이승희 교사(덕암초)의 '중등 다문화 적용 수업' 사례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편견없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교원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과 공감으로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담당자들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